

목포시, 태양광발전 임대 사업 주민 반발 '시끌'

환경오염·자연훼손·빛 반사율 등 우려... 밀실행정 비판도 市 "공공시설 유희공간 활용 임대 수익 창출 재원 확보 목적"

목포시가 용궁배수지 내 태양광발전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목포시 안대길 39(용해동 281-52) 용궁배수지 4만4천272㎡(수도용지·목포시 소유) 중 9천133㎡(전체 부지 20% 해당)에 태양광발전 민간 임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배수지 내 유희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임대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목포시의 경영 환경 개선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목포시는 지난 5월21일 시 누리집에서 15일만 임대사업 모집공고를 통해 전남도내 1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

수받았다.

지난 6월24일 제안서 평가위원회(관계공무원 5명)를 거쳐 같은 달 27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통보했다. 제안 내용은 임대기간 10년(10년 연장가능), 발전 용량 2천336kW, 소요 공사비 30억원이다.

목포시는 지난 8월2일 임대사업자와 가계약 체결했으며 같은 달 9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전남도 에너지정책과에 접수한 상태다.

하지만 마을 3곳, 30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반대 서명운동과 함께 목포시에 주민의견서(9가지)를 접수하며 오는 12월8일까지 목포시청 앞 철회 요구 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또 목포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지



목포시가 용궁배수지 내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 빛 반사율 등 우려로 현수막을 내걸며 반대하고 있다.

역구 시·도위원을 포함한 일부 정치인도 현황 파악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 대표 A씨는 "환경오염, 자연훼손, 빛 반사율 등이 우려돼 지역 주민 95% 이상이 해당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며 "지난 5월21일 공모를 시작해 사업자 선정, 부지 가계약까지 마치고, 전남도

의 태양광발전사업 인가가 나올 시기가 되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23일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며 에너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

응하고 공공시설물 유희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연간 3천700여만원의 임대 수익을 창출, 시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며 "주민설명회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장비 등의 출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설명하는 자리로, 주민수용성을 위한

공청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목포시는 민간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사업 인가를 받게 되면 본 협약을 체결, 오는 2025년 1월 공사를 추진, 3월에 태양광발전을 가동할 예정이다.

/목포=정해선 기자

강진원 강진군수,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전'

문금주 의원 면담 郡 핵심사업 3건 예산 반영 요청

강진원 강진군수가 내년도 정부예산 안에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강 군수는 2025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에 맞춰 국회 방문을 위해 예산안에 미반영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사업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강 군수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문금주 의원 등을 만나 ▲작전 하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총사업비 115억원) ▲화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총사업비 160억원) ▲산림미래교육원 조성(총사업비 300억원) 등 총 3개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 정부예산안에 국

회 증액을 요청했다.

이 중 작전 하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작전 아흥리 일대 8개 마을, 256가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공중보건 위생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또한 화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군동면 화산리에 있는 화산저수지를 증설해 가뭄 상습지역인 금강리 일대 86.4ha 면적까지 매년 농촌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피력했다.

강진원 군수는 "정부예산 편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계속 국회와 중앙부



강진원(왼쪽) 강진군수가 최근 문금주 국회의원을 만나 2025년 정부예산안에 국회 증액을 건의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강진군 제공>

처를 방문하고, 지역 국회의원, 전남도 등과 연계해 마지막까지 국비 확보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증액사업은 오는 18일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29일 국회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심의의 결정다.

/강진=정영록 기자

영암군, 무화과 지적재산권 3종 획득

총채벌레 방제 봉지씌우기 등 디자인 상표 등록

영암군은 "최근 영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적재산권 3종 획득 등을 포함한 무화과 연구 성과를 알리는 '2024년 무화과 연구사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결과보고회는 '해충방제', '신종품', '고품질 생산' 3개 주제로 ▲무화과 총채벌레 방제 봉지씌우기 ▲우량 청무화과 재배기술 확립 ▲겨울철 무화과 탄산시비 등의 효과를 논의하고, 무화과 농가

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센터는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총채벌레 방제 무화과 봉지씌우기 연구사업으로 2023년 디자인등록, 2024년 봉지씌우기 특허기술 획득 및 '기찬총이망' 상표등록으로 3종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했으며 농진청의 '2025년 기술보급 불런딩 협력 모델 시범사업' 공모를 발굴해 내년부터 농가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영암=나동호 기자

완도 해조류 심포지엄 '성료'

郡 관련 산업 미래가치 재조명 등

완도군이 해조류 탄소 저감 영향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탄소중립 도시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생활문화센터에서 '해조류 양식이 탄소 저감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해조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블루카본(해양 생태계 탄소 흡수원) 분야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에서는 해조류 양식이 탄소 저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심포지엄은 완도군이 주최하고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대학 교수, 해조류 관계 기관·단체·협회·전문가, 어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해 다섯 개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기후변화로 인한 해조류 양식의 환경 변화(박상률 제주대학교 교수) ▲완도 해조류 양식의 해양 환경적 우수성(김규범 서울대학교 교수) ▲해조류 성장에 위한 해양생지화학 물질 순환(김태훈 전남대학교 교수) ▲한국 해양 해조류 양식 종의 해양 경관 및 개체군의 유전학적 연구(이현재 상지대학교 교수) ▲해조류 스트레스 반응의 이해 및 응용(심재성 전남대학교 교수)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완도 해조류 양식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완도군에서 신우철 군수와 8명의 대학 교수가 열린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김정빈 순천대 교수는 "최근 가속화되는 기후변화 속에서 2050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해 탄소 흡수원의 추가적인 발굴과 블루카본으로 인정 가능성이 높은 해조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완도=윤보현 기자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상품대전 수상작 전시

내달 8일까지 한국천연염색박물관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독창적인 천연염색 작품을 나주시에서 만날 수 있다.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10일 "오는 12월8일까지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대한민국천연염색문화상품대전 공모전 수상작 전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

2006년부터 19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천연염색문화상품대전은 천연염색분야 국내 유일의 전통과 최대 규모로 열리는 행사로 전국 작가들이 참여한다.

작품 공모는 '인간과 자연이 주는 공존·추억 여행'이라는 주제로 지난 9월8일부터 10월5일까지 진행됐다.

영예의 대상이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작품명 '국화꽃 사연'을 출품한 김필래 작가가 차지했다.

금상(전남지사상)은 김연화 작가의 '만마담(藍)에디션', 은상(나주시장상)은 '자연의 선물'의 김태희, '그시절 푸르름(문은신넵)'의 이정미, '나의 사랑은 어디에'의 최미정 작가가 각각 수상했다.

홍콩 공적 CHEUNG Chun Lam Eric



작가를 비롯한 5명은 동상인 한국천연염색박물관장상을 받았다.

임경렬 재단 상임이사는 "문화적 요소나 전통을 담아내 활용성이 높은 천연염색 작품을 출품해 준 국내·외 작가

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역량을 갖춘 작가 발굴과 천연염색 문화상품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신안군, 이집트 카이로서 세계 정상 '우뚛'

리브컴 어워즈 '금상'...신안갯벌·햇빛연금 등 국제적 인정

신안군은 "최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2024 리브컴 어워즈(LivCom Awards)'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안군이 이번에 수상한 '2024 리브컴 어워즈(LivCom Awards)'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인한 세계적 권위의 국제대회로 '그린 오스카(Green Oscar)'라고 불리며 전 세계 지방정부의 혁신과 우수 사례를 평가하는 상이다.

올해는 전 세계 230여개 도시가 참가해 열린 경연에 펼쳤으며, 최종 결선은 우리나라에서 참가한 신안군을 포함해

최종 30개 도시가 진출했다.

신안군은 박우량 군수가 영어로 발표에 나섰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신안 갯벌'과 유엔 최우수 관광 마을 '퍼플섬' 등 풍부한 생태와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생태 보존과 주민 공동체 활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ESG 지속 가능 요소들을 도입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가는 신안군의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주민 소득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모델인 '햇빛연금'은 발표 자리에 참석한 참석자와 심사위원들이 큰 관심을 보였고 지속가능한



신안군은 최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2024 리브컴 어워즈(LivCom Awards)'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신안군 제공>

혁신 사례로 인정했다.

이번 금상 수상은 기준을 뛰어넘는 성과로 단순한 수상의 영예가 아닌 '스마트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신안군은 추가로 건강한

고령화를 지원하는 도시로 인정받아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세계 인류애적 도시(World Humanity City for Healthy Ageing)' 파이널 시티로 지정돼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로서의 가능성도 함께 인정받았다.

/신안=양홍기 기자

해남 아동친화도시 조성 '박차'

학생 주도 정책 토론·관련 영회제 개최 등 활동 활발

해남군이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관내 산이초등학교에서 2024년 아동친화학교를 운영했다.

아동친화학교는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확대하고, 아동권리 존중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아동 스스로 수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남군 작은학교 살리기 캠페인의 하나로 전체 7학년 재학생 33명의 소규모 학교인 산이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3·6학년으로 구성된 2명

학생들이 조를 이뤄 아동 정책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해 줄 것 ▲재난상황에 대비한 체험형 안전교육 ▲학교 내에서 즐겁게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제안을 도출해 교장에게 전달했다.

또한 지난달 25일에는 해남시내마에 서 제1회 해남군 아동청소년 영화제가 열렸다. 50여명의 아동, 부모, 아동 관련 종사자가 참여한 영화제에서는 아동권리 영화 '알록달록'을 관람 후 흥송기 감동을 초청해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남=박필용 기자